

지역 소식통

익산시 황등농협, CJ 햇반 쌀 계약재배 농가 교육

익산시는 황등농협이 22일 익산농업인 교육관에서 CJ 햇반용 쌀 계약재배 농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작년 7월 익산시와 CJ프레시웨이, 황등농협은 농특산물 생산·소비·유통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CJ프레시웨이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황등농협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이날 보람찬 벼 재배 및 육묘 병해충 방지 체계 사례 등을 교육했다.

작년에 첫 햇반용 쌀 공급을 시작한 익산시와 황등농협은 올해에도 보람찬 쌀 종자 90톤을 확보해 CJ프레시웨이 약 5,00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 '세계 물의 날 기념' 하천정화·홍보활동

익산시는 22일 제25회 '세계 물의 날(3.22)'을 기념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와 함께 금마저수지 일원에서 하천정화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세계 물의 날'은 심각한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제정, 선포하여 1995년부터 매년 3월 22일로 제정했다.

익산시와 강살라기네트워크가 공동 추진한 이번 행사에는 19개 단체 약 450여 명이 참석해 금마저수지 및 육룡천 주변 정화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현을 익산시장이 참석하여 환경 정화활동과 홍보활동에 공이 많은 단체 등 5개 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보건소, 부모 코칭 프로그램 'Happy Mom' 대상자 모집

군산시 보건소가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부모코칭 프로그램 'Happy Mom'을 운영하며, 내달 5일까지 신청서 접수에 들어간다.

'치유와 힐링'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 정신건강 교육, 자기감정 및 가족에 대한 이해, 아로마테라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4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7회 과정에 걸쳐 수업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보건소 아동·청소년관리실(☎ 451-0381)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이리공고 교육과정 설명회 호응

학부모 170여명 참석... 인성교육강화 사업·칭찬 릴레이 등 소개

이리공업고등학교(교장 최동암)는 지난 21일 저녁 이리공업고등학교 기립식생활관에서 170여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교육 추진계획 및 교육과정 설명회를 가졌다.

이리공업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일과 후에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올해도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여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2014년, 2015년, 2016년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과 최우수상 등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관악부의 식전 축하 연주도 2017년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였다.

이어 최동암 교장 선생님은 '바른 품성을 지닌 창의적 인간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기본생활 습관이 바로고 성실하며 실력 있는 학생으로 지도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학교 경영목표라고 밝혔다.

자율과 책임을 다하며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와 학생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참된 사랑으로 소명감을 갖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학부모님들께 전했다.

특색사업과 노력중점 사업으로 인성교육강화 사업과 칭찬 릴레이 운영, 취업캠페인 운영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리공고는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로 지정되어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교육



육 취약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소개하였다.

학부모님은 전문교육 및 취업안내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프로그램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맞춤반 운영',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 '본고동문 출신 CEO를 활용한 취업지원', '공무원 및 공채 준비반 운영', '글로벌 해외연수 선별 준비 및 영어회화반 운영', '취업마인드 향상 및 정보제공을 위한 행사' 등에 학생들의 참여 방법과 학부모의 협력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도 하였다.

상담 선생님께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학생의 관계가 원활할 때 학생은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조하였다.

상담에 대한 도움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학생들과의 소통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언제든지 상담실에 연락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급담임과의 면담시간에서는 학부모님은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상담하는 등 밤 10시가 넘도록 담임선생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익산=장왕원기자

원광대 지역발전연구소, 춘계 세미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왜 독서 인문학인가'

원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왜 독서 인문학인가'를 주제로 춘계 세미나를 21일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했으며, 세미나에 앞서 원광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간에 인문·독서·학습 분야 교류를 위한 MOU 및 학술도시 기성식도 열렸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기술 지원 학술교류 등을 위해 협력관계를 도모하기로 했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원광대에 학술도시 1,000권을 기증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는 인문학 독서증진을 위한 미디어 활용 전략

과 '인문학 도서 수요창출을 위한 출판전략 전략 등 두 개 주제로 나눠 열렸으며, 송인호 전주MBC 국장파와 이한나 책공장 대표가 각각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인문계 및 학계, 출판계 인사들이 쟁점과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김도중 총장은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그리고 책읽기'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인문학 관련 법률 제정 등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4차 산업의 기초는 인문학"이라고 강조하고, "인문학 공부의 출발이 저문 학습교류 등을 위해 협력관계를 맺어야 하며,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인 경계'를 허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역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정기회의

군산시가 22일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함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17년 시행계획 심의를 비롯해 19년도 전국시행에 앞서 시범실시의 단계로서 각 부서별로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 28개를 선정하고, 4월 중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아동영향평가와 관련 지난해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공개모집과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될 총 9명의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평가 대상은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의거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 ▲아동대상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이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 평가이며,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군산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어린이 권리증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시민과 어린이가 공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군산시가 재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검사자연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를 징합하여 내국인 1765명, 외국인 1508명 총 3273명을 유치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약 4억3000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내분 및 폭촉장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예금·급여 등 채권 및 재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할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금융 제재를 시행 중이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 개선

군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군산시가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군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제12조에는 단체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3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 숙박 유치 시, 개정 전에는 숙박을 유치만 해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숙박뿐만 아니라 관내 음식점 이용

유료관광객 1개소, 농촌체험교육장 방문 중 하나 이상의 이용을 여행코스에 넣어야 하는 필수조건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당일 관광객 유치의 경우, 기존에는 관내음식점 이용과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용(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이 조건이었으나 바뀐 내용에는 관내음식점과 유료관광지 1개소를 이용하고 관내 관광지 2개소, 전통시장, 농촌체험교육장 체험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이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 이용

익산=장왕원기자

군산=문정곤기자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